

자연의 순리와 더불어 사는 '땅의 사람들'

윤정모의 장편 농민소설 「들」

민족문학의 위기라고들 한다. 작품의 창작부진과 그 틈을 파고든 자칭 포스트모더니즘의 폐해를 보며 민족문학을 아끼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아쉬움을 금할 길 없었다. 그런 가운데 접한 윤정모의 새 소설 「들」(창작과 비평사)은 그러한 아쉬움을 일정 부분 달래주었다.

이 작품은 해방 이후로부터 88년 여의도 농민시위까지의 농민운동 역사를 '제비울'이라는 한 마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선형, 형권, 한수, 재현, 춘권 등 인물들의 살아숨쉬는 듯한 현상을 통해 그러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점이다. 우선 소지주로서 해방 이후부터 마을사람들을 괴롭히는 부정적 인물 구황보 영감의 죽음이 있다. 작품 전반부에 소설의 재미를 더해주는 구영감의 풍자적 모습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다 불에 타 죽는 비참한 모습을 통해 기회주의적인 반동적 인물들에게 작가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구황보 영감에 의해 폐인이 되고 아내 남촌댁까지 빼앗기는 학길의 죽음이 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헛것으로 보게 되는 농민세상을 통해 작가는 착취당하고 억압받고만 살아오던 농민들이 이제는 떨치고 일어서는 모습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작품 마지막에 농민대회에 참석해 전경에 의해 허리를 다치는 한수의 죽음은 그러한 농민세상이 그리 쉽게 오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작가는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 농민들이 수탈당하고 자각하여 일어서지만, 그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외에도 이 소설의 미덕은 인물들의 생동적인 현상화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이 인물들이 순창에 실제로 살고 있는 농민운동가라는 면도 관련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작가의 현상화 능력의 몫으로 평가하고 싶다.

한편 이 작품이 후반부로 들어가면 80년대 후반 농민운동의 역사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해 인물들이 부차적으로 사건 속에 배치된 듯 한 것은 이 소설의 다소간의 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앞에 지적한 이 소설의 장점과 뛰어난 자연묘사와 자연의 순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과의 대화 등은 오랜만에 소설다운 소설을 접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자신의 뿌리와 땅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해주는 이 소설에 대해 나는 다른 이들에게 감히

일독을 권하고 싶다.

강영훈

서울 구로구 개봉1동 138-2 용두연립 나동 103호

「女子의 男子」

내가 서점의 진열대에서 김한길의 「女子의 男子」(해냄)를 뽑아든 이유는, 제목이 제공하는 사고의 공간이 꽤 넓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제목에서부터 무한한 상상을 불러넣은 이 책을 읽어가면서 과연 '어떤 여자의 어떤 남자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물론 다 읽고 난 후에 나름대로 해답은 찾았지만...

「女子의 男子」는 남자(방송국 구성작가 강찬우)와 여자(대통령의 딸이면서 재벌그룹 총수의 며느리인 김은영)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 사랑도 어느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과 같이 많은 제약과 방해물을 설정해서 이들의 사랑을 순탄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특히 이 소설은 여자에게 우리사회 통념상 부여하기 힘든 신분을 제공해서 독자의 눈길을 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오직 진실된 사랑으로 이러한 역경들을 극복해 낸다.

소설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의 '재회'로 시작한다. 6년 전의 첫 '만남'과 '첫밤'을 그려놓고, 현실의 제약을 뿌리치려는 그들의 지순한 노력을 보여준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의 도피도 모두 좌절되고 결국 여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새봄'을 맞는다.

다분히 통속적일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작가의 뛰어난 감성 추출과 언어 선택이 절묘한 감각으로 지루하지도 않고, 말초적이지도 않으면서 재미와 의미를 균형있게 배합시켰다. 기발한 상황설정과 군살없는 진행에, 이야기의 중요한 대목마다 작곡 프레베르의 서정시들을 적절히 구사하여 이야기의 흡인력을 한층 높였다. 바로 김한길만의 향취요 감각이다.

서문에서 언급했듯 "사랑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사랑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몰아붙이는 이들" 그리고 "사랑 따위는 이미 오래 전에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女子의 男子」는 위로와 격려를 반성과 기억을 일깨워줄 것이다.

소설의 기능은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있다. 이 감동은 그 자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새로운 힘을 부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女子의 男子」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요즘과 같이 사랑이 혼탁한 때이기에 이 소설은 더욱 값지다. 내 마음을 밝혀놓은 "768개의 주경기장 조명"이 쉽게 꺼질 것 같지가 않다.

안남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APT 213동 1012호

「살아남은 자의 슬픔」

눈도 잠지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옷차림에 해적관 일본가요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 소니 워크맨을 호주머니에 쑤셔넣은 젊은이들이 걸어간다. 90년대 신인류들의 메카, 압구정동의 왜색은 이제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없을 만큼 제자리를 차지해 버렸고, 신촌, 종로, 대학로의 아이들도 압구정족보다는 물(?)이 다소 떨어질 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한국의 일본아이들이 태버렸다.

때아닌 왜색논쟁이 벌어진 곳이 또 있다. 바로 '문학'이라는 동네다. 현대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이 흉내내고 있다. 이인화가 쓴 소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가 그렇고, 박일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세계사)이 그렇다. 알파한 작가정신을 개탄하는 사람, 문학에서 모방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사람, 반응도 가지가지다. 어쨌든 나는 이 소설들을 흥미있게 읽었고 특히 박일문의 소설은 아주 조심스럽게 읽었다.

브레히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으로 이 소설은 시작된다. '나'의 어머니와 라라와 디디, 온통 이 세 여자의 이야기뿐이다. '성카프카'를 쫓아 자살한 어머니, 가장 정치적인 문제로 고뇌하다 가장 비정치적인 죽음을 선택한 연인 라라, 이 두 여인의 그림자는 '나'의 글쓰기의 동인이다.

80년대의 어둡고 탁한 공기는 예외없이 라라와 디디와 나를 에워싸고 있다. 운동, 구속, 수배, 도피, 출가의 낯설고 고된 길을 걸어왔던 '나'. 조직원이 됐지만 실존의 문제로 방황했던 '라라'. 정치권력의 폭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자신을 발견했던 '디디'. 정치적 좌절을 이들을 奇行의 길로 몰아넣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이들의 감당할 수 없는 광기가 사랑과 이념과 정치적 행동의 형태로 분출되었다가 자살과 출가와 섹스에의 탐닉이라는 새로운 형태-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는 지극히 왜곡된

것이지만-로 나타난 건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한 한사람이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내내 우울했다. 젊은 작가가 표절 운운하는 말을 듣는 것도 우울했고 그것이 일본작가의 작품이라는 것도 우울했다. 그러나 이 우울의 근거가 도덕적 痼症이라는 혐의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고립된 개인들이 엮어가는 아름답지 못한 삶들, 따뜻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자기고민, 현란한 수사만이 넘쳐나는 전박함, 문학과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분리시킴으로써 작가는 '나' 역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갈아타기' 식의 글쓰기를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정치적이고자 했던 한 인간의 고약한 변신을 지켜보는 듯한 참담함이었다. '나'는 정말 슬펐을까,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정임

서울 마포구 중동 삼일신촌빌라 A동 208호

「펠리칸 브리프」

첫눈 오는 날, 나는 웬지 모르게 값을 치르고 책을 사서 영원히 내 소유로 만들고 싶었다. 그 책이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마음뽐듯한지 몰랐다. 그 책이 바로 「펠리칸 브리프」였다.

보통 한번 책을 읽기시작 하면 끝을 보는 성미이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 물론 흥미없는 부분도 많아 지루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책을 놓지 못하게 했다.

무서웠다. 지금도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쫄다. 내가 꼭 다비쇼나 되는 것처럼. 이 책에서 짚고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 권력이란 것과 그런 권력으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 돈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을 명예와 돈 때문에 모여든다는 것. 과연 권력이란 무엇인가? 어떤 학자는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했다. 인간의 본능, 그래, 그래서 나또한 남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려고 발버둥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인간이 스스로 불행을 자처한다라는 말이 이런 곳에 쓰이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생각해주며 더불어 산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욕심이 많아서일 것이다. 물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야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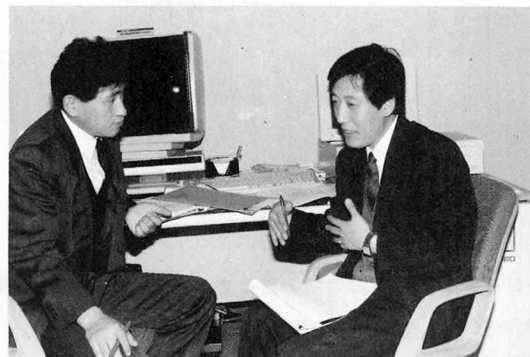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터링 등
- 제작대행 / 조판 · 제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 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3
FAX : 739-9356 MODEM :

론 환경문제도 이런 욕심 때문이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책의 내용중 이런 부분이 있다. 다비쇼와 그랜섬의 대화이다. "이미 변호사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왜 똑똑한 학생들이 모두 계속 법대로 몰려드는 겁니까?"

"간단해요. 탐욕이죠. 그들은 BHW와 골드 신용카드를 갖고 싶어하죠...." 다른 먼나라만의 얘기가 아닐 것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것인데, 그저 돈 때문에 모인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일단 출세할 수 있다면 모여드는 사람들의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 자신이 없어진다. 사회인이 되어 나 또한 그들 중 하나로 전략할까 봐서. 이 책을 읽고 너무 사회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사회의 밝은 모습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과 오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펠리칸 브리프, 내가 작가가 전하고자 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재미있었다.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건진행이 빠르고 튼튼하다. 내 느낌은 이렇다.

이은주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

「루쉰전」

계절은 벌써 차다.

낙엽이 지고 땅이 얼어붙고 이른 아침 길을 나서면 두툼한 옷을 걸쳐입고 사람들은 저마다 어디론가로 바삐 움직인다.

이맘쯤이면 누구나 할것없이 쓸쓸해 보인다.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자기의 빈 구석을 조심스레 살피곤 한다. 가을이란 계절이 끝날 무렵 외로움을 타다가 공상에 젖는가 무엇에 푹 빠져 고독해 보이기도 하고 성숙해 보이기도 한 게 사람인 듯싶다.

요근래 일에 체이다 접한 루쉰전을 사람에게 대해 좀더 폭넓은 이해를 갖게 했고 앞으로의 삶에 길이 되어주는 생명력을 지녔기에 감동을 함께 하고자 한다.

루쉰에 대해선 「何Q정전」을 썼다는 것과 엄숙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끝없이 바라보는 사

진을 본 것 외엔 기억속에 없었다.

루쉰은 50여년의 생애를 통해 문학가로 사상가로 혁명가로 시대의 햇불로 타올랐다.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깨뜨리며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온몸으로 시대의 고통을 받아안으며 가시밭길을 헤쳐나간 사람이다.

루쉰이 살아 했던 말은 일들로 그의 삶을 우러러볼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읽고 내 가슴이 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는 겸손하며 진실한 이웃을 위해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품성을 가졌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나 요즘같이 물질화되어 가는 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릴때를 떠올리면 항상 이웃사람들이 떠오른다. 바로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기 때문이다.

루쉰이 40대에 쓴 잡문 중에 이런 글이 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개혁이란 처음에는 각성한 지식인들이 젊어진다. ... 그들도 권리를 행사하지만 사람속이지는 말아야 하며 남을 잘 인도하지만 영합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여러 사람들의 노리개로 인정하여 스스로 알보지 않거니와 또 다른 사람 자신의 즐거움로 보아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한다."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눈돌리는 우리지만 열심히 생활해 나가는 것도 바로 우리다. 땀흘린 만큼 대가를 바라는 떳떳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가슴을 열어 세상을 보고 넉넉한 여유로 타인을 대하는 마음을 지녔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추워지기 전에 추운 계절을 이겨내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병우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광 2리 447